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친구유무, 사회적 행동특성, 친구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김 보 경¹⁾

박 성 연²⁾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협동과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15명으로 수줍은 아동의 친구유무, 수줍은 아동과 친구의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상호적 친구유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Parker와 Asher(1993)의 친구관계 측정(Friendship assessments)을, 수줍은 아동과 친구의 친구관계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은혜, 고운주(1999)의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χ^2 검증, t 검증 및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수줍은 아동은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상호 친밀한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친구가 없는 수줍은 아동, 특히 수줍은 여아는 공격성이 높고 또래 괴롭힘을 당하였다. 또한 수줍은 아동과 그 친구는 친사회성 정도나 또래 괴롭힘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였으나 친구관계 질은 서로 달랐다. 한편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 질은 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 수줍은 여아가 남아보다 친밀감과 인정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줍은 아동과 그 친구의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을 파악함으로써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가 수줍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친구관계, 수줍은 아동,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친구관계의 질

* 본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과정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협동과정 교수 (E-mail : psy@ewha.ac.kr)

I. 서론

친구관계(friendship)란 또래와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친밀한 관계를 맺은 아동과 자발적,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나누는 상호적 관계를 뜻한다(Hartup, 1995). 다른 아동과의 관계형성이나 관계망이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아기와는 달리, 초등학교 시기의 친구관계는 보통 자발적인 양상을 띄게 되며,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아동기의 친구관계는 사회적 기술을 훈련시키고, 사회적 지지나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자아개념발달에 관련이 되는 등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ukowski, 1996; Bukowski & Hoza, 1989). 그러므로 아동기에 친구와의 관계형성에 문제가 있는 아동은 긍정적인 적응을 위한 발달적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Rubin, Burgess, Kennedy, & Stewart, 2003). 나아가 친구가 없거나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부정적인 자기지각을 갖기 때문에 점차 심각한 내현화 문제를 갖게 된다(Ladd & Troop-Gordon, 2003; Parker & Asher, 1993). 그러나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일지라도 친밀한 친구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에는 또래관계로 인한 부적응의 위험을 낮추고 문제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또래수용 정도가 낮은 아동이라도 친구가 있다면 외로움이나 우울, 학교 부적응과 비행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완화되며(Parker & Asher, 1993), 또래에 의한 집단 괴롭힘이나(Hodges, Bovin, Vitaro, & Bukowski, 1999) 또래거부로 인한 낮

은 자아지각이 중재(조절) 된다는 보고가 있다(Vandell & Hembree, 1994).

근래에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아동의 또래관계나 친구관계에 관련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 학자들의 관심은 또래집단에서의 지위보다는 아동이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친구관계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Berndt, 1996; Ladd & Kochenderfer, 1996).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수줍은 아동의 특성 및 친구관계를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Hartup, 1995),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은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Ladd & Troop-Gordon, 2003),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의 특성에 관한 것(양원경, 1999; 정경화, 2004)이며, 다른 아동들에게 다가가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를 다룬 연구는 Rubin, Wojslawowicz, Rose-Krasnor, Booth-LaForce과 Burgess (2006), Fordham와 Stevenson-Hinde(1999)등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줍은 아동은 타인과 언어적 상호작용이 드물어 고립되고(도현심, 정승원, 1997),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내현화 문제를 나타내기 쉽지만 친구관계가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Fordham & Stevenson-Hinde, 1999)는 점에서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또래집단에서의 지위나 또래수용에 초점을 두으로써 친구관계와 또래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왔다. 또래관계가 집단 내에서의 수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친구관계는 또래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은 소수 아동과 더

빈번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나누는 것으로 상당히 안정된 상호적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또래관계나 또래수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a). 더욱이 또래관계와 친구관계는 아동의 발달이나 적응과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다. 즉, 또래지위와 수용으로 측정되어지는 또래관계는 아동의 부적응을 더 잘 예측하는 한편, 친구관계는 자아존중감의 증진이나 행동문제 중재 등 긍정적인 측면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ukowski & Hoza, 1989; Vandell & Hembree, 1994).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본 연구는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 형성이나 친구관계의 질 그리고 이들의 사회적인 행동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수줍음과 같은 성격적 특성이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수줍은 아동은 수줍지 않은 아동의 친구관계 특성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또래관계 대신 친구관계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친구의 유무 및 수와 친구관계의 질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Parker & Asher, 1993), 다차원적 측정을 강조한 Hartup (1993)은 친구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친구유무, 아동의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바 있다. 우선 친구유무와 관련하여 볼 때, 수줍은 아동은 일반적으로 친구 수가 적고 사회관계망이 좁은 것으로 나타난다(Jones & Briggw, 1984). 수줍음이 많은 아동은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부적절한 상호작용 양식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접촉이 제한되고(강소연, 1994),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되어지는 경향이 높다(Asendorpf,

1990). 그러나 수줍은 아동의 친구유무를 살펴본 Rubin 등(2006)은 수줍은 아동도 친구가 있는 일반 아동만큼 상호 안정적인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일반 아동의 71% 정도가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한편, 수줍은 아동 또한 64% 정도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아동의 수줍음 자체가 곧 또래로부터 거부나 무시를 이끌어내는 변인이 아님을 시사하였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은 친구의 특성에 의해 유사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친구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따라 친구관계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Rubin et al, 2003; Rubin et al, 2006 b). Rubin 등(2006b)은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이 친구가 없는 수줍은 아동보다 또래사이에서 인기도와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수줍은 아동일지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특성을 보일 경우, 또래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되며 친구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수줍은 아동은 또래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 인기도 영역에서 자기의 친한 친구와 유사한 행동특성을 보였으며, 성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남아는 또래 괴롭힘과 친사회적 행동, 인기도에서 유사성을 보인 반면, 여아는 친사회적 행동에서만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Rubin et al., 2006b). 일반적으로 친구의 긍정적 기능(예; 도움, 인정, 정서적 안정)이나 부정적 기능(예; 갈등, 경쟁) 및 친구관계로 인한 만족감으로 정의되는 친구관계의 질은 친구관계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요한 측면이다.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2001)에 의하면, 위축된 아동은

친구로부터 충분한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낮다. 같은 맥락에서 Rubin 등(2006b)도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은 일반아동 보다 친구관계의 질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한편, 수줍은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종합해 보면,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는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줍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구관계 연구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서,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를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친구유무, 사회적 행동특성,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수줍은 아동과 친구 간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의 유사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 특성(친구유무, 사회적 행동특성, 친구관계의 질)은 어떠한가?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수줍은 아동과 친구 간 친구관계 특성(사회적 행동특성, 친구 관계의 질)은 서로 유사성이 있는가?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415명의 남녀아동이며,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령기동안 친구라는 존재가 아동에게 보다 중요하며 친구나 친구가 아닌 아동에 대한 행동의 차이와 아동의 친구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에 의한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Parker & Asher, 1987).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수줍은 아동은 Burgess, Wojslawowicz, Rubin, Booth-LaForce와 Rose-Krasnor(2003)가 개발한 학급놀이 확장판(Extended Class Play)의 5개 하위영역 중 수줍음(4문항)과 공격성(7문항) 문항으로 측정되며 Rubin, Wojslawowicz, Rose-Krasnor, Booth-LaForce와 Burgess(2006)의 연구대상 분류 기준에 따라 수줍음 점수는 상위 33%, 공격성 점수는 하위 50%에 속하는 아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수줍은 아동의 분류기준에 충족된 아동 총 96명(M=12.27세, SD=.44)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친구관계 측정,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척도 및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아동보고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친구(best friend)유무

수줍은 아동의 친구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Parker와 Asher(1993)가 제작한 친구관계 측정

(Friendship Assessments)을 사용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대상아동에게 학급 내에서 친한 친구를 3명 선정하게 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들 3명을 잘 살펴보고, '가장 친한 친구' 1명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 아동이 가장 친한 친구로 최종 지명한 아동이 대상아동을 친한 친구목록 3명 중에 포함시켰을 경우를 상호선택에 의한 친구관계인 친구(best friend)로 규정하게 된다.

사회적 행동특성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Masten, Morison과 Pellegrini(1985)의 학급놀이 수정판(Revised Class Play: RCP)에 기초하여 Burgess, Wojslawowicz, Rubin, Booth-LaForce와 Rose-Krasnor가 개발한 학급놀이 확장판(Extended Class Play: ECP)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 문지는 또래 괴롭힘(8문항), 공격성(7문항), 인기도(5문항), 친사회적 행동(6문항), 수줍음(4문항)과 관련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또래 괴롭힘은 “다른 아이들에게 심술궂다는 말을 듣는 아이”, 공격성은 “다른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방해하는 아이” 인기도는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의 말을 잘 듣는 아이”, 친사회적 행동은 “무엇을 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 수줍음은 “말을 많이 하지 않거나 조용히 말하는 아이”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측정방법은 동일학급 내, 동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래지각에 의한 보고이며, 각 아동에게 학급 아동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배부한 후, 각 문항에 해당하는 학급 친구를 1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각 행동특

성 점수는 각 문항에 대해 학급친구로부터 지명 받은 횟수를 하위영역별로 합산한 후 표준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로 측정된 문항내적 일치도는 하위영역별로 .82 ~ .91이었다.

친구관계의 질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개발된 이은혜, 고윤주(1999)의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관계의 질의 하위영역은 친구의 긍정적 기능 6가지, 부정적 기능 2가지,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만족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은 모두 각각 4개 문항씩으로 총 36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친구의 긍정적 기능은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정서적 안정’, 친구와의 지속적인 관계와 믿음을 의미하는 ‘신뢰’, 실제로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해주는 ‘도움’,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의 상태를 민감하게 아는 ‘친밀감’,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인정’, 친구와 어떤 활동을 함께 하는 ‘교제의 즐거움’으로 구분된다. 한편, 부정적 기능은 의견의 불일치, 다툼과 같은 불편한 상황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갈등’, 일상생활에서 친구와의 ‘경쟁’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친구에 대한 애정과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느낌을 의미한다. 측정방법은 아동이 지명한 ‘가장 친한 친구’ 1명에 대해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척도의 각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아주 조금 그렇다’(1)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기능과 만족

감은 높게, 부정적 기능은 낮게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α 로 측정된 문항내적 일치도는 하위영역별로 .77 ~ .90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아동용 질문지는 서울시 소재 1개 초등학교 5, 6학년 13학급을 임의로 선정한 후,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455부의 설문지 중 일부 자료가 미비한 설문지 40부를 제외한 415부를 수줍은 아동을 선별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수줍은 아동 96명의 자료를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연구대상자를 분류하기 위해서 학급놀이 확장판(ECP)의 각 문항에 대해 또래로부터 지명 받은 횟수를 합산하여 학급별, 성별에 따라 표준점수(Z-score)를 산출한 후, 아동별로 각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의 표준점수(Z-score)를 구하였다. 이를 기초로 Rubin 등(2006b)의 분류기준에 따라 학급별로 수줍음이 상위 33%, 공격성이 하위 50%인 아동을 수줍은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χ^2 검증, 전체 아동 및 남녀 아동 각각을 대상으로 t 검증과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

표 1. 수줍은 아동의 친구유무와 성차

	전체 (N=96)	친구 有 (N=76)	친구 無 (N=20)	df	χ^2	p
남아	49	38	11	1	.158	ns
여아	47	38	9			

수줍은 아동의 친구유무

수줍은 아동의 친구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기술 통계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아동 중 수줍은 아동은 총 96명(남=49, 여=47)으로 분류되었고, 수줍은 아동 96명 중 76명, 즉 수줍은 아동의 79.2%가 친구가 있었다. 또한 수줍은 아동의 친구유무에 따른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수줍은 아동의 친구유무는 아동의 성별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유무에 따른 수줍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수줍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이 친구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수줍은 아동의 경우 사회적 행동특성의 ‘공격성’($t=-2.851$, $p<.01$)과 ‘또래 괴롭힘(피해행동)’($t=-2.224$,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친구가 없는 수줍은 아동은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남아와 여아 각각을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사회적 행동특성은 친구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아의 경우는 친구유

표 2. 친구유무에 따른 수줍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과 성차

	전체(N=96)			남아(N=49)			여아(N=47)		
	친구 有	친구 無	<i>t</i>	친구 有	친구 無	<i>t</i>	친구 有	친구 無	<i>t</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수줍음	9.71 (9.13)	11.75 (11.53)	-.839	9.55 (9.88)	9.09 (10.02)	.136	9.87 (8.44)	15.00 (12.98)	-1.470
공격성	.91 (1.06)	2.10 (3.04)	-2.851 **	.87 (1.14)	1.09 (1.04)	-.579	.95 (.98)	3.33 (4.18)	-3.255 **
인기도	2.68 (4.56)	2.15 (1.95)	.510	3.76 (6.02)	2.73 (2.24)	.556	1.61 (1.86)	1.44 (1.33)	.243
친사회적 행동	8.33 (8.73)	8.05 (8.90)	.127	10.13 (10.86)	11.91 (10.39)	-.482	6.53 (5.46)	3.33 (2.78)	1.692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	.38 (.61)	.55 (.53)	-1.075	.36 (.66)	.50 (.50)	-.607	.40 (.56)	.61 (.60)	-.955
또래 괴롭힘 (피해행동)	.92 (1.63)	1.97 (2.60)	-2.224 *	1.23 (2.15)	1.10 (2.08)	.173	.62 (.74)	3.03 (2.90)	-4.647 ***

** $p < .01$, *** $p < .001$

무에 따라 ‘공격성’($t = -3.255$, $p < .05$)과 ‘또래 괴롭힘(피해행동)’($t = -4.647$,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친구가 없는 수줍은 여아는 친구가 있는 수줍은 여아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

표 3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수줍은 아동은 친구관계의 질 중 ‘긍정적 기능’을 높게 지각하였다. 즉, 1점에서 4점 범위 중 긍정적 기능인 ‘교제의 즐거움’($M = 3.26$, $SD = .79$)이 가장 높았으며, ‘신뢰’($M = 3.06$, $SD = 1.48$), ‘정서적 안정’($M = 3.05$, $SD = 1.84$)이 그 다음으로, ‘도움’($M = 2.71$, $SD = .74$), ‘친밀감’($M = 2.60$, $SD = 1.07$),

‘인정’($M = 2.50$, $SD = .74$)의 순으로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친구에 대한 ‘만족감’ 역시 1점~4점 범위 중 3.4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 기능인 ‘갈등’($M = 1.62$, $SD = .55$), ‘경쟁’($M = 1.62$, $SD = .67$)은 비교적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질 중 긍정적인 질은 대체로 여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친밀감’($t = -3.298$, $p < .01$)과 ‘인정’($t = -3.098$, $p < .01$)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져, 남아보다는 여아가 친구를 통해 ‘친밀감’이나 ‘인정’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그러나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부정적 기능이나 친구에 대한 만족감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성차¹⁾

친구관계의 질		전체(N=61)	남아(N=30)	여아(N=31)	t
		M(SD)	M(SD)	M(SD)	
긍정적 기능	정서적 안정	3.05(1.84)	2.97(2.48)	3.13(.90)	-.340
	신뢰	3.06(1.48)	3.04(1.98)	3.08(.77)	-.108
	도움	2.71(.74)	2.59(.61)	2.83(.84)	-1.250
	친밀감	2.60(1.07)	2.17(1.17)	3.01(.79)	-3.298 **
	인정	2.50(.74)	2.20(.74)	2.79(.75)	-3.098 **
	교제의 즐거움	3.26(.79)	3.11(.78)	3.40(.80)	-1.440
부정적 기능	갈등	1.62(.55)	1.60(.54)	1.63(.57)	-.200
	경쟁	1.62(.67)	1.52(.53)	1.72(.78)	-1.163
친구에 대한 만족감	만족감	3.41(1.21)	3.33(1.56)	3.49(.76)	-.487

** $p < .01$

2. 수줍은 아동과 친구 간 친구관계의 유사성

수줍은 아동과 친구 간 사회적 행동특성의 유사성

수줍은 아동과 그들의 친구의 사회적 행동 특성 간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수줍은 아동과 친구의 사회적 행동특성은 ‘친사회적 행동’($r=.302$, $p<.05$)과 ‘또래 괴롭힘(피해행동)’($r=.684$, $p<.001$)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남, 여 아동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수줍은 남아와 친구의 사회적 행동특성은 ‘친사회적 행동’($r=.614$, $p<.01$)과 ‘또래 괴롭힘(피해행동)’($r=.729$,

$p<.001$)에서, 수줍은 여아와 친구의 사회적 행동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표 4. 수줍은 아동과 친구 간 사회적 행동특성의 유사성

수줍은 아동	수줍은 아동의 친구		
	전체 (N=61)	남아 (N=30)	여아 (N=31)
사회적 행동특성			
수줍음	-.022	.164	.221
공격성	-.102	-.086	-.236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	-.023	-.072	.081
또래 괴롭힘 (피해행동)	.684 ***	.729 ***	.019
인기도	-.032	-.135	-.229
친사회적 행동	.302 *	.336 *	.343

* $p < .05$, ** $p < .01$, *** $p < .001$

1)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 76명 중 불성실한 답변과 설문지의 누락으로 인해 총 연구대상자가 61명임.

지 않았다. 즉, 수줍은 남아는 친구와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측면과 친사회적 행동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수줍은 아동과 친구 간 친구관계 질의 유사성

수줍은 아동과 그 친구 간 친구관계 질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전체 아동의 경우 ‘친밀감’($r=.330, p<.05$)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교제의 즐거움’($r=-.354, p<.05$)에서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수줍은 아동과 친구는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교제의 즐거움에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한편, 성차도 나타나 남아의 경우 ‘신뢰’, ‘도움’(각각 $r=-.445, p<.05$; $r=-.473, p<.01$)에

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여아의 경우 그 어느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수줍은 남아 여아 모두 친구관계의 질, 즉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및 만족감에 대해 자기 친구와 다소 다르게 지각하며 특히 남아의 경우는 신뢰와 도움에서 서로 상반된 지각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수줍은 아동의 친구유무,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수줍은 아동과 그 친구 간에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에서 유사성이 있

표 5. 친구관계 질 각 측면에서 수줍은 아동과 친구 간의 상관관계

수줍은 아동		수줍은 아동의 친구		
		전체(N=61)	남아(N=30)	여아(N=31)
친구관계의 질				
긍정적 기능	정서적 안정	.089	.103	.041
	신뢰	-.070	-.445*	-.104
	도움	-.004	-.473**	-.122
	친밀감	.330*	.073	.114
	인정	.212	.184	.248
	교제의 즐거움	-.354*	-.208	.192
부정적 기능	갈등	.006	-.309	-.102
	경쟁	.258	-.145	-.083
친구에 대한 만족감	만족감	.010	-.109	-.190

* $p<.05$, ** $p<.01$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의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학생 중 수줍은 아동으로 분류된 총 96명이며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아동과 남아, 여아 각각을 대상으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및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줍은 아동은 연구대상 아동 415명 중 총 96명으로, 수줍은 아동의 79.2%가 상호 친밀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수줍은 아동의 65%, 일반 아동의 70%가 친구가 있다는 Rubin 등(2006b)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일반아동의 경우 친한 친구로 상호 지명된 아동이 78%였다는 Parker와 Asher(1993)에 근거해 볼 때, 또한 지면관계상 본 논문에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아동의 친구유무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줍은 아동도 일반 아동만큼 상호 안정적인 친구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줍은 아동의 친구유무는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은 아동의 친한 친구유무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Rubin 등(2006b)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수줍은 아동이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아동의 성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수줍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피해행동)’에서 친구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친구가 없는 수줍은 아동은 공격성이 높고 또래 괴롭

힘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남아와 여아를 각각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흥미롭게도 사회적 행동특성에서의 친구유무에 따른 차이는 여아의 경우에만 나타났다. 즉, 친구가 없는 수줍은 여아는 친구가 있는 수줍은 여아에 비해 또래들에 의해 보다 공격성 수준이 높고,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수줍은 여아에 관한 본 연구결과는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수줍은 아동과 같이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상호적 친구가 적은 아동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정선진, 2005; 최미경, 도현심, 2001)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수줍은 행동특성이나 친사회적 행동, 인기도에서는 친구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가 있는 수줍은 아동이 친구가 없는 수줍은 아동보다 또래집단 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ubin 등(2006b)의 연구와는 다르다. 친구유무에 따라 인기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는 친구관계가 아동이 속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는 Benjamin 등(2001)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는 간혹 수줍은 아동이 조심성 있고 생각이 깊은 안전한 아이로 인식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정은혜, 김춘경, 2003) 수줍은 아동이 때로 인기가 있으며, 수줍은 아동의 인기여부는 친구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친구관계의 질 중 ‘긍정적 기능’과 친구관계로 인한 ‘만족감’을 높게

지각했으며, 남아보다는 여아가 평균적으로 친구관계의 질을 다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아는 ‘친밀감’이나 ‘인정’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높게 지각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관계의 질 전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연구(이은혜, 고윤주, 2004)나 여아들이 친구로부터 인정과 친밀감 등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다는 결과(Clark & Ayers, 1992; Parker & Asher, 1993; 윤미경, 1998)와 일치한다. 이는 남아가 많은 친구와 피상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여아는 소수의 친구와 자주 접촉하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을 중요시하며 깊은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Erwin, 1998)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수줍은 아동과 친구 간 사회적 행동특성의 유사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의 경우 수줍은 아동은 자기 친구와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에서 유사하였으며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수줍은 남아의 경우는 ‘또래 괴롭힘(피해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서 친구와 유사한 행동특성을 보인 반면, 여아의 경우는 사회적 행동특성 중 어느 영역에서도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은 남아와 여아 모두 친사회성과 또래 괴롭힘 피해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던 한편, 그 외에도 수줍은 남아는 인기도와 또래 괴롭힘에서도 유사성을 보이고 여아의 경우는 인기도에서도 유사성을 보였다는 Rubin 등(2006b)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 아동은 비슷한 성향을 지닌 아동과 친구관

계를 맺는다는 연구결과(이은혜, 고윤주, 2004; Pellegrini, Bartini, & Brooks, 1999)와 유사하다. 친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Bukowski, 1996)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줍은 남아와 그 친구 간 친사회적 행동특성의 유사성은 수줍은 남아가 친구의 영향으로 인해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 괴롭힘 피해 측면에서도 유사성으로 인해 수줍은 남아와 그 친구의 행동문제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친구관계 질 측면에서 수줍은 아동과 친구 간 유사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줍은 아동과 친구는 친밀감 정도를 서로 유사하게 지각하고 있었으나 교제의 즐거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게 지각하였다. 한편, 성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 여아의 경우는 수줍은 아동과 친구 간 친구관계의 질에서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아는 신뢰감과 도움에서 친구와 서로 상반된 지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경우 특히 ‘신뢰’나 ‘도움’에서 친구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서로 다른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줍은 아동은 친구를 가지고 있으며 성에 관계없이 친밀한 친구관계를 나누고 있다. 또한 수줍은 아동은 친구가 없는 경우 대체로 공격성이 높고,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가 높았으며 특히, 여아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졌다. 친구관계의 질은 대체로 높게 지각하였으나 남아보다는 여아가 특히 친밀감이나 인정을 높게 지각해 성차를 보였다. 한편, 수줍은 아동과 친구 간 사회적

행동특성 중, 특히 남아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 괴롭힘 피해에서 유사성을 보인 한편, 신뢰와 도움행동에 대해서는 친구와 서로 상반된 지각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수줍은 아동과 친구 간의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의 질의 유사성을 파악해봄으로써 수줍은 아동에 대한 친구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능을 시사하고,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 지도를 위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줍은 아동과 그 친한 친구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을 또래보고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이나 측정방법에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수줍은 아동의 친구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논의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를 비교해 보거나 여러 평가자의 평가를 포함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연 (1994). 아동의 수줍음과 놀이실에서의 사회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정승원 (1997).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수줍음. *아동학지*, 18(2), 149-161.
- 윤미경 (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 (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해, 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 이은해, 고윤주 (2004). 또래 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아지각. *아동학회지*, 25(4), 1-16.
- 이은해, 김정윤, 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225-242.
- 정경화 (2004). 거부아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진 (2005). 또래 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해, 김춘경 (2003). 아동의 수줍음감소를 위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초등교육학회*, 16(1), 317-340.
- 최미경, 도현심 (2001).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경험에 관한 심층면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31-46.
- Asendorpf, J. B. (1990). Beyond social withdrawal: Shyness, unsociability, and peer avoidance. *Human Development*, 33, 250-259.
- Benjamin, W. J., Schneider, B. H., Greenman, P. S., & Hum, M. (2001). Conflict and childhood friendship in Taiwan and Canada.

-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3, 203-211.
- Bukowski, W. M., Newcomb, A. F., & Hartup, W. W. (Eds)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pp.15-45). In T. J. Berndt, & G. W. Ladd, (1989).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71-94). New York: Wiley.
- Clark, M. L., & Ayers, M. (1992). Friendship similarity during early adolescence: Gender and racial patterns. *Journal of Psychology*, 126, 393-405.
- Erwin, P. (2001).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박영신 (번역). 서울: 시그마 프레스. (1998년 원저 발간).
- Fordham & Stevenson-Hinde (1999).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189-21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artup, W. W. (1993). The three faces of friend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 569-574.
- Hartup, W. W. (1995).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Hodeges, E. V. E., Bovin, M., Vita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Jones, J. M., & Briggs, S. R. (1984). *Shyness: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 27-38. New York: Plenum Press.
- Ladd, G. W., & Kochenderfer, B. J. (1996). Linkages between friendship and adjustment during early school transi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ellegrini, A. D., Bartini, M., & Brooks, F. (1999). School bullies, victims, and aggressive victims: Factors relating to group affiliation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216-224.
- Rubin, K. H., Burgess, K., Kennedy, A., & Stewart, S. (2003).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In E. Mash & R. Barkley (Eds.), *Child psychopathology*(2nd ed., pp.372-406). New York: Guilford Press.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 (2006a). Peer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Vol. 3, pp.571-645). NJ: Wiley & Sons.
- Rubin, K. H., Wojslawowicz, J. C., Rose-Krasnor, L., Booth-LaForce, C., & Burgess, Kim. B. (2006b). The best friendships of shy/withdrawn children: Prevalence, stabi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43-157.
- Vandell, D. L., & Hembree, S. 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Child Development*, 68, 1198-1209.
- 1 차원고접수 : 2009. 02. 22.
수정원고접수 : 2009. 05. 25.
최종게재결정 : 2009. 06. 09.

An analysis of the Friendship Patterns of Shy Children

Kim, Bo-Kyung

Dept. of Consumer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ark, Seong-Yeon

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hy children's friendships. The participants were 96 shy children identified from 455 5th or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chi-square test,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Our results showed that 1) Shy children were as likely as other children to have stable best friendships. 2) Shy children with mutual best friends showed lower aggression and lower victimization than shy children without mutual best friends. 3) Shy girls reported higher level of friendship quality than did shy boys. 4) Regarding friendship quality, there were significant similarities in terms of both intimacy and companionship between shy children and their best friends.

Key words : friendship, shy children, social behavior characteristics, friendship